

국어 (9급)

(과목코드 : 014)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발음의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뚫는[뚫는]
- ② 넓다[널따]
- ③ 끝으로[끄츠로]
- ④ 젓먹이[젓머기]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① 집 밖에 눈이 쌓였다.
- ② 공부 밖에 모르는 학생이군.
- ③ 맨손으로 땅을 팠다.
- ④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은 채,

3.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 ②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 ③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④ 끊어 읽기의 단위

4. 아래의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설거지는 내가 할게.
- ②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꼈다.
- ③ 잠시 후 산등성이가 보였다.
- ④ 저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5. 다음 낱말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 ① 깨끗히
- ② 가득히
- ③ 조용히
- ④ 고스란히

6. 다음 문장 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
- ②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 ③ 이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 ④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 표현 중에는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重義性)인데, 이는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① 나는 내일 철수와 선생님을 만난다.
- ②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 ③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그림을 어루만졌다.
- ④ 글쎄,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8.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 든 것은 생전 처음 맛닥뜨린 낯성의 스산하고 () 기운이었다. - 최명희, <혼불>

- ① 성마른
- ② 돈바른
- ③ 살천스러운
- ④ 암상스러운

9. 다음 중 밑줄 친 ㉠, ㉡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김완진 해독), 「제망매가」

- ①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한 편이다.
- ② ㉠은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 ④ ㉡은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적 공간을 제시한다.

10. 다음은 탑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의 목차이다. ㉠~㉣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서론

2. 탑골공원의 지리적 조건
1) 교통편과 주차 시설
2) ㉠편의 시설과 주변 상가
3) ㉡인근 공원의 위치와 거리

3.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
1) 연령대별 이용 시간
2) ㉢ 선호하는 공원 시설 및 행사
3)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 대책

4. 결론

- ① ㉠ ② ㉡
- ③ ㉢ ④ ㉣

11. ㉠~㉣에 알맞은 말은?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어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어요?’처럼 ‘해요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 곧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습니까?’,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윗사람과 말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쇼체’를 써서 ‘이번 일은 제가 맡아 처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 가정에서라면 아랫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해라체’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할 때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요.’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매우 어리거나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 하고 존대의 효과가 없는 ‘해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계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조금 대우해 줄 수도 있다.

- ① ㉠ 그러나 ㉡ 한편 ㉢ 그래서
- ② ㉠ 그러나 ㉡ 한편 ㉢ 그리고
- ③ ㉠ 그리고 ㉡ 따라서 ㉢ 그래서
- ④ ㉠ 그리고 ㉡ 따라서 ㉢ 그러나

12. 다음 중 밑줄 친 ㉠~㉣의 한자음이 잘못 연결된 것은?

우리는 어떤 行爲가 ㉠行爲者의 ㉡自由意志에 의한 것일 때에 그 行爲에 대해 道德的 ㉢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自由意志에 의한 行爲인지의 ㉣與否를 가리는 基準은 무엇일까?

- ① ㉠ 行爲者-행위자
- ② ㉡ 自由意志-자유지사
- ③ ㉢ 責任-책임
- ④ ㉣ 與否-여부

13. 다음 중 밑줄 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서 도공은 지난 주 경영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으로 기존 전자화폐나 교통카드 겸용 신용 카드 대신 새로운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 이의 발급을 도공 자신이 주관키로 결정했다. 도공 관계자는 20일 “기존 전자화폐 5종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도 각 지역별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사가 직접 관리, 운용하는 편이 충실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① 막역지우(莫逆之友)
- ② 백중지세(伯仲之勢)
- ③ 난형난제(難兄難弟)
- ④ 막상막하(莫上莫下)

14.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외적으로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된다. 문학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내적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작가의 맥락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작가의 생애나 작가가 경험한 특정한 사건이 작품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용의 시 「유리창」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정지용의 가정사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와 문학 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 문학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

- 「고등학교 문학」

- 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 ② 문학 작품의 이해는
- ③ 문학 작품의 내적 맥락은
- ④ 문학 작품의 비평은

15.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생태계의 파괴와 새롭게 개발된 생명과학 기술이 점차 인간의 삶과 그 존엄성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학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것이 갖는 도덕성도 심심찮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생명과학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태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명과학이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생명과학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학이 개발해 내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출인 것이다.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개연성 ② 합리성
- ③ 양면성 ④ 일관성

16. 아래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는 ‘다행히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의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종류도 있어요

- ① 설마 학교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
- ② 차가 빨리 달린다.
- ③ 공을 멀리 던졌다.
- ④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17. 다음 글이 <보기>의 ㉠~㉣ 중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그래서 서양미술에서는 사람의 측면만 그리는 ‘프로필(프로파일)’이라는 미술 장르가 발달했다. 프로필이라는 말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보 기>

어떤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허리와 발은 측면으로 그려지곤 한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별로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난다. (㉠)

이렇게 각 부위의 중요한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이므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흠 없는 인간, 영원히 썩지 않고 스러지지 않을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

이집트 그림에서는 신과 파라오, 귀족만이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곧잘 이런 법칙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 이는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오로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의 범인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범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은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 반면 고귀한 신분은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존재이므로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18.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은?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별관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축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빗줄기가 복터위와 달음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① 역설법
- ② 과장법
- ③ 직유법
- ④ 활유법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빚어내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원래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인데, 이 원어는 라틴어로 ‘앞’이라는 뜻의 ‘pre-’와 ‘앉아 있다’라는 뜻의 ‘sidere’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 석상에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번역되면서 아직도 전제 정치의 특징인 ‘통치권’이 우리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인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의식이 병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코는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하였나 보다.

- ① 에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한다.
- ②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이다.
- ③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20.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운명론을 예로 들어보자.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따라서 ‘규범의 파괴’가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나) 한편,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의 배경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의 고통은 여러 사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체제의 책임이라는 관념, 나아가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심한 사회적 통제와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2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휴지를 샀다.
- ②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③ 동네 아이들이 길가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었다.
- ④ 요즘에는 디지털보다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인기이다.

22. 다음 작품과 주제 및 정서가 가장 비슷한 것은?

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흔고
 넷 사람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을 믈 것가
 수간모옥을 벽계수 앓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휘여 잇고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넨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인 다룰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흔디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① 오백 년 도움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썸이런가 호노라
- ②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재미도 호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기 님 짜해 닛드니
- ③ 청산은 엇데하야 만고애 프르르며
 유수는 엇데하야 주야애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호리라
- ④ 십 년을 경영하야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 혼 간 맞져 두고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23. 다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즉, 거시적인 전망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민족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서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정치권력의 흥망성쇠를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역사 서술인 미시사(微視史)는 이러한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 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다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다.

- ① 이 글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 ②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
- ③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
- ④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거문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거문고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타봄으로써 거문고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24.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 ③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 ④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2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 판단의 합리성
- ② 올바른 성품의 중요성
- ③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
- ④ 자기반성과 자아실현의 의의